

Vol. 41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10. 10.

■ 정책동향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등

■ 해외단신

EU, Cork 2.0 선언(농촌개발 컨퍼런스)

■ 연구지원

2016 고령자 통계 등

■ 현안분석

농업 부문 고령화 실태와 시사점

☐ 정책동향

정책동향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0.06.)

☐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10.6.] 금년 수확기 쌀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확정·발표
 - (쌀 초과공급 해소)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구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 강화 및 쌀 직불제 등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1. 금년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 물량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 실시] 통계청 예상수확량 발표 시점(10월)에 잠정 격리물량 산정, 실 수확량 발표 시점(11월)에 최종 물량 확정
 - (시장격리곡 매입계획)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
 -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 최대한 자제
 - ※ 다만, 군·관수용(5.7만 톤), 복지용·학교급식(11만 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
- [2. RPC 비 매입자금 지원 확대(정부 1.4조 원, 농협 1.6조 원)] 정부와 농협중앙회, RPC 등*에 대한 비 매입자금 지원 확대,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유도
 - ※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국종합처리장), DSC(Drying & Storage Center, 건조·저장시설)
 -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
 - ※ 수매기간 중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을 확정,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 [3. 공공비축미(36만 톤) 및 해외공여용(APTERR*) 쌀(3만 톤) 연말까지 매입] 우선 지급금은 45천 원/벼40kg을 잠정 지급,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10월 중 재 산정

㉔ 정책동향

- **(제도개선)** 매입대상 품종 고품질 위주로 개선,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재배면적 반영*
※ (기존) 전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 85%, 진흥지역 논면적 10, 품종제한실적 5 → (개선)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
- 농가편의를 위해 **산물 형태* 매입 1만 톤 증량**(2015: 8만 톤 → 2016: 9)
※ 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
- **[4. 수확기에 수입 밥쌀 방출량 감축 또는 중단,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 실시]**
△쌀값동향 고려해, **수입 밥쌀의 방출 물량·횟수 조절**, △통신 판매업소, 저가미 판매업소 등에 대한 **혼합유통 특별단속 실시(10.1~11.20.)**
- **5. 사료용쌀 추가공급, 해외원조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 추진**
 - **(사료용)** 식용 사용이 곤란한 묵은 쌀의 사료용 사용 확대
 - **(복지용)** 관계부처 협의 및 실태조사 통해 공급가격 할인 폭 확대, 포장제 변경 등 수급권자의 수요 확대 방안 강구
 - **(해외원조용)**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소규모(1천 톤 내외) 원조 우선 추진, 국제기구 통한 지원 확대 적극 검토

□ 중장기 개편 방안

-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8천 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
※ 2016년산 쌀 직불금 예산: (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직불금] 237만 원*(고정 100, 변동 137) 지급 가능**
※ 전년 대비 37만 원 ↑
-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3,789원/80kg)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추진해 차질 없이 직불금 지급
- **[중장기 대책 마련]** 쌀 초과공급 해소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 유도, 쌀 직불제 개편**
 - **(기업과의 상생협력)**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 제품 R&D 및 수출확대 등 소비 진작 노력 강화
 - **(농지 관련)**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 연내 마무리, 추가 적인 농지 정비 계획 연말까지 수립,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 합리화

㉔ 정책동향

□ 2015년, 2016년 쌀 수급안정 대책 비교

- 2016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은 2015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과 **기본 방향은 유사, 수확기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공급 부문 대책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함.**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5)** 4대 목표*, 3대 분야, 10대 과제 제시
※ 1) 향후 3년 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쌀 수급 조기 달성, 2) 3년 후 적정 재고 수준 회복, 3) 쌀 수급안정 및 발작물 재배 확대, 4) 쌀 수급 방식을 협업·협력 체제로 전환

■ 2015년, 2016년 쌀 수급안정 대책 비교 ■

분 야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5.12.30.)〉	〈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6.10.6.)〉
	주 요 과 제	주 요 대 책
생 산	(쌀 적정 생산 유도) •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 • 민간·지자체 역할 강화 • 쌀직불제 개선방안 마련 • 농지제도 개편 • 쌀 고품질화 유도	• 신곡 수요 초과물량 시장 격리 • RPC 등에 버 매입자금 확대 • 공공비축미, 해외공여용 쌀 매입 •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 방출 감축 또는 중단 • 쌀직불제 개편(중장기) • 농업진흥지역 정비 연내 완료, 추경 정비 계획 수립 • 고품질 쌀 생산 및 타 작물 재배 확대 유도(중장기)
수 요	(쌀 수요 확대) • 사료용 쌀 등 새로운 소비 확대 •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지원 •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쌀 소비 촉진	• 소비 진작 -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R&D 및 수출 확대 등)
재 고	(재고 관리) • 정부 쌀 재고 2018년까지 80만 톤 수준으로 감축 • 수입쌀 관리 체계 개선	• 특별재고관리 대책 지속 추진

주: 굵은 글씨는 두 대책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을 표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 2016).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보도자료, 2015.12.30.
- 농림축산식품부. 2016. “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6.10.7.

배추·무 수급안정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0.05.)

□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9.30.] 폭염 등에 따른 작황악화로 가격 급등한 **고랭지 배추·무 수급상황 및 대책 추진상황 긴급 점검, 가을배추무 수급 전망 통해 선제적 수급대책 논의**
 - ※ 생산자 대표(마늘산업연합회, 무배추생산자연협회, 농협 등), 소비자·유통업체(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학계(KREI, 대학), 정부(농식품부, 기재부 등)

□ 배추·무 수급동향 및 전망

- [동향] △**배추가격**...평년대비 강보합세*, △**무 가격**...평년대비 강보합세**
 - ※ 고랭지배추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작황 악화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 포장 김치 소비증가에 따른 김치업체의 원료 확보
 - ※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작황 악화와 배추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체소비 증가
- [전망] **배추·무 가격**은 10월 준고랭지 작형(배추 중순, 무 상순) 본격 출하로 **현 수준에서 하락, 가을작형 출하가 시작되며**(배추 10월 하순, 무 11월 상순) **안정화***
 - ※ 월별 가격변화 패턴('11~'15년 소비자물가지수) 분석에 따르면, 배추가격은 고랭지 배추 출하기(7~10월) 상승하다, 가을배추(11~12월) 출하기에 크게 하락하는 경향

□ 배추·무 수급안정대책

- [공급조절물량 확보] 10월 중순까지 **생산안정제**(잔량 배추 680톤), **출하안정제**(잔량 배추 4,800톤, 무 830) 및 **상시비축 물량**(월 배추 2,500톤, 무 900)을 **시장에 집중 공급**
 - ※ 또한, 가을배추·무 상시비축(월 배추 3,400톤, 무 900) 및 출하안정제(배추 52,000톤, 무 1,600) 물량을 사전 확보해 김장철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
-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정생산 지원] **태풍, 이상저온 등에 따른 작황악화에 대비해 현장 모니터링 강화, 농가 재배기술 지도 강화** 통해 신속한 회복 지원
- [할인판매]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배추 등 할인공급** 통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병행
- [향후계획] 고랭지 생산단지에 다단양수, 대형저수조 등 용수개발사업 등 기반 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특별대책」 마련, 농업관측 고도화와 생산안정제 확대 등 수급안정제도 체계화 통해 구조적인 수급불안 문제 해소

건고추 '경계경보' 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0.06.)

- [농식품부,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9.30.] 전·평년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건고추에 대해 **수급여건 및 가격동향 점검**하고 「**경계경보**」 발령*
 - ※ 2016년산 건고추 생산예상량은 86천 톤(전년대비 12천 톤↓)으로 도·소매 및 산지 가격 모두 낮으며, 특히 산지가격은 「경계경보」에 위치
- (주요 내용) 산지가격 지지 및 농가 판로확대 등을 위해 **햇고추 판매와 정부 비축물량 소진**을 **연계 추진***, 동시에 **햇고추 소비촉진** 방안으로 **TV 홈쇼핑 기획판매 확대**** 등 추가대책 논의
 - ※ 정부비축물량(2013년산 5.8천 톤) 소진은 수출보다 수입산 대체가 보다 효과적이며, 햇건고추 판매와 연계 추진 시 산지가격지지 가능
 - ※ ※ 가격이 낮은 2016년산 햇고추 소비확대를 위해 'TV 홈쇼핑 기획판매(10~11월)' 확대 추진

〈기 추진대책(“2016년산 건고추 수급전망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9.12.), 보도자료〉

- 국내산 대규모 소비확대를 중점 추진해 나가되, 농협계약재배물량 확대 및 출하조절, 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
- 저장한계기에 있는 2013년산 5,799톤은 연말까지 수출, 수입산 대체 등을 최대한 추진하고 11월까지의 미방출
- 수급상황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햇건고추에 대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국내산 건고추 구입소비 당부

2017년 농어촌 BcN 구축사업에 252억 원 투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6.09.30.)

-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스마트인프라 구축 협의회 개최, 9.29.] 2016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이하 'BcN') 구축사업* 현황 점검과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검토
 - ※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해소 및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17년까지 전국의 13,217개의 마을에 BcN 구축 목표로 추진
- (주요 내용) **농어촌 BcN 구축사업에 252억 원*** 투자, **13,217개 농어촌 마을 망구축 완료**, 대다수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 ※ 정부 62.88억 원, 지자체 62.88억 원, 사업자 125.76억 원
- (기대 효과) **도·군간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이용 격차 해소**를 통해 **통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

해외단신 EU, Cork 2.0 선언(농촌개발 컨퍼런스)

□ EU, 20년 만에 Cork 2.0 Declaration 발표

- [대상국가] EU
- [자료출처] EU Commission
- 1996년 Cork에서 개최된 유럽 농촌개발 컨퍼런스(European Conference on Rural Development)에서 채택한 the Cork Declaration은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었음. 특히,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기둥(second pillar)’을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됨.
- EU에서는 2016.9.6. 혁신적·통합적·포괄적 농업·농촌개발 정책 이행과 관련된 10가지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였음.

■ “A Better Life in Rural Areas” ■

1.	• 농촌지역 융성 촉진
2.	• 농촌지역 가치사슬 강화
3.	• 농촌지역 활성화 및 활력 증진 투자
4.	• 농촌지역 환경 보전
5.	• 자연 자원 관리
6.	• 기후변화 대응 장려
7.	• 지식 전파와 혁신 촉진
8.	• 농촌지역 거버넌스 개선
9.	• 정책 전달 체계 개선 및 간소화
10.	• 성과와 책임성(accountability) 향상

연구지원 2016 고령자 통계

자료 : 통계청(2016.09.29.)

□ 개요

-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발표, 9.29.] 2003년 이후 고령 인구의 특성 및 복지, 문화, 여가 등 고령자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관련 지표 수집·정리
-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 변화” 기획보도) 국민의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는 「사회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고령자(65세 이상)의 가족, 복지, 사회참여 등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의식 변화 분석

□ 주요 내용

<인구>

- [인구]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 전체 인구의 13.2% 차지
- (노년부양비) 18.1명, 생산가능인구(15~64세) 5.5명이 고령자 1명 부양
- [고령자 가구] 2015년 5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그 중 32.9%는 고령자 1인 가구
- [고령인구 비율] 2015년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1.1%),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8.9%), 5개 지역(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경제활동>

- [고용률] 2015년 65세 이상 고용률 30.6%, 증가세 주춤
- [근속기간] 2016년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 기간은 14년 11.1개월, 전년 대비 1.7개월 ↑
- [취업의사] 2016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61.2%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며, 취업을 원하는 주요 이유는 ‘생활비 보탬(58.0%)’, ‘일하는 즐거움(34.9%)’ 때문

<보건>

- [사망원인] 2015년 고령자 사망원인은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순
※ 암종류별 사망률: 폐암 > 간암 > 대장암 순
- [기대여명] 2014년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18.3년, 여자 22.8년
- [진료비] 2015년 건강보험 상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의 36.8%, 1인당 평균 진료비 343만 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진료비 115만 원보다 약 3배 정도 많아

연구지원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고령자는 41만9천명, 전년 대비 40,404명 ↑,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
- **[공적연금]**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42.3%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으며, 그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88.3%로 가장 많아
- **[연금수령]** 지난 1년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44.1%가 평균 51만 원의 연금 수령
- **[생활비 마련방법]** 2015년 고령자 10명 중 6명(58.5%)은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

<문화와 여가>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2015년 고령자 4명 중 1명(24.5%)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종류별로 ‘영화(73.0%)’ > ‘박물관(29.1%)’ > ‘음악·연주회(21.4%)’ 순
- **[여가활동]** 주말이나 휴일에 고령자의 주된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의식 변화>

- **[생활여건의 변화]** 65세 이상 고령자는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하여 좋아졌다고 느낌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고령자의 60% 이상은 가사를 「부인이 주도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고 생각
-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고령자의 만족도는 「만족」과 「보통」 정도가 비슷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만족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큰 폭으로 감소, 「부모 스스로 해결」 혹은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강해져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약 10년 전 수준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부담을 느낌
- **[노후 준비]**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고령자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며, 노후 준비방법은 ‘예금·적금’ > ‘국민연금’ > ‘부동산’ 순
- **[사회적 관계망]**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몸이 아프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70% 내외가 2명 정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 **[문화 및 예술 관람]** 고령자들의 문화 및 예술 관람 비율은 2009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지만 고령자의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여전히 25% 미만으로 낮은 수준

연구지원

2016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 통계청(2016.10.04.)

□ 개요

- **[통계청, 2016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발표, 10.4]** 2016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5조 5,757억 원**(전년 동월 대비 27.3% ↑),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3조 343억 원**(전년 동월 대비 49.6% ↑)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54.4%** 차지
- **(온라인 농축수산물)** △상품군별 거래액·전년 동월 대비 38.2% ↑, 전월 대비 18.7% ↑,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전년 동월 대비 0.2%p ↑, 전월 대비 0.4%p ↑

□ 주요 내용

■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

(단위: 억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률			
	8월		7월p		8월p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 합 계	43,797	20,278	55,796	29,371	55,757	30,343	-0.1	3.3	27.3	49.6
컴퓨터 및 주변기기	2,759	731	3,206	910	3,235	964	0.9	6.0	17.2	31.8
가전·전자·통신기기	4,924	1,958	7,138	3,275	6,855	3,214	-4.0	-1.9	39.2	64.2
소프트웨어	43	7	47	9	54	13	14.8	42.9	24.2	91.0
서적	934	236	1,176	336	1,104	333	-6.1	-0.7	18.2	41.0
사무·문구	330	80	377	107	364	109	-3.4	1.1	10.4	35.6
음반·비디오·악기	123	42	161	61	156	63	-3.5	3.2	26.8	48.6
의복	3,696	2,153	4,988	3,160	4,420	2,893	-11.4	-8.4	19.6	34.4
신발	632	353	880	540	680	427	-22.7	-20.8	7.7	20.9
가방	638	341	931	597	954	615	2.4	3.0	49.4	80.1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716	384	971	607	952	602	-1.9	-0.9	33.0	56.7
스포츠·레저용품	1,614	656	2,434	1,231	2,066	1,068	-15.1	-13.2	28.0	62.9
화장품	2,618	1,532	3,931	2,486	4,390	2,859	11.7	15.0	67.7	86.7
아동·유아용품	2,010	1,218	2,316	1,558	2,202	1,522	-4.9	-2.3	9.5	25.0
음·식료품	3,912	2,107	5,335	3,042	5,792	3,644	8.6	19.8	48.0	73.0
농축수산물	1,088	539	1,266	719	1,503	803	18.7	11.8	38.2	49.0
생활·자동차용품	4,336	2,283	5,479	3,267	5,662	3,455	3.4	5.7	30.6	51.3
가구	999	408	1,277	598	1,348	661	5.6	10.5	34.9	61.8
애완용품	211	107	276	167	272	169	-1.4	0.9	29.0	58.0
여행 및 예약서비스	9,908	3,938	11,358	5,361	11,371	5,520	0.1	3.0	14.8	40.2
각종서비스 및 기타)	2,305	1,204	2,248	1,340	2,377	1,409	5.7	5.2	3.1	17.1

※ 꽃은 각종서비스 및 기타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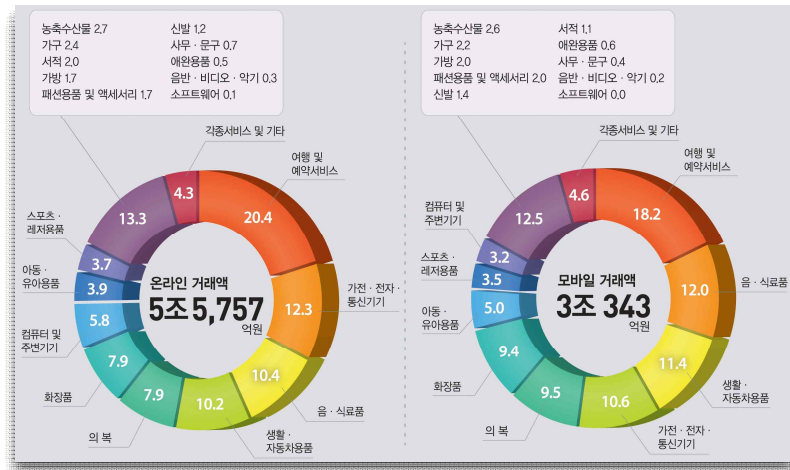
■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 ■

(단위: %, %p)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8월		7월p		8월p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6.3	3.6	5.7	3.1	5.8	3.2	0.1	0.1	-0.5	-0.4
가전·전자·통신기기	11.2	9.7	12.8	11.2	12.3	10.6	-0.5	-0.6	1.1	0.9
소프트웨어	0.1	0.0	0.1	0.0	0.1	0.0	0.0	0.0	0.0	0.0
서적	2.1	1.2	2.1	1.1	2.0	1.1	-0.1	0.0	-0.1	-0.1
사무·문구	0.8	0.4	0.7	0.4	0.7	0.4	0.0	0.0	-0.1	0.0
음반·비디오·악기	0.3	0.2	0.3	0.2	0.3	0.2	0.0	0.0	0.0	0.0
의복	8.4	10.6	8.9	10.8	7.9	9.5	-1.0	-1.3	-0.5	-1.1
신발	1.4	1.7	1.6	1.8	1.2	1.4	-0.4	-0.4	-0.2	-0.3
가방	1.5	1.7	1.7	2.0	1.7	2.0	0.0	0.0	0.2	0.3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1.6	1.9	1.7	2.1	1.7	2.0	0.0	-0.1	0.1	0.1
스포츠·레저용품	3.7	3.2	4.4	4.2	3.7	3.5	-0.7	-0.7	0.0	0.3
화장품	6.0	7.6	7.0	8.5	7.9	9.4	0.9	0.9	1.9	1.8
아동·유아용품	4.6	6.0	4.2	5.3	3.9	5.0	-0.3	-0.3	-0.7	-1.0
음·식료품	8.9	10.4	9.6	10.4	10.4	12.0	0.8	1.6	1.5	1.6
농축수산물	2.5	2.7	2.3	2.4	2.7	2.6	0.4	0.2	0.2	-0.1
생활·자동차용품	9.9	11.3	9.8	11.1	10.2	11.4	0.4	0.3	0.3	0.1
가구	2.3	2.0	2.3	2.0	2.4	2.2	0.1	0.2	0.1	0.2
애완용품	0.5	0.5	0.5	0.6	0.5	0.6	0.0	0.0	0.0	0.1
여행 및 예약서비스	22.6	19.4	20.4	18.3	20.4	18.2	0.0	-0.1	-2.2	-1.2
각종서비스 및 기타	5.3	5.9	4.0	4.6	4.3	4.6	0.3	0.0	-1.0	-1.3

※ 꺾은 각종서비스 및 기타에 포함

■ 상품군별 구성비(%) ■



현안분석 농업 부문 고령화 실태와 시사점

※ 통계청 「2015년 농림어업 종조사」(2016.09.26.)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분석 및 시사점

- **[고령농 비중]** 2015년 농림어업종조사 결과에서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은 (2010) 31.8% → (2015) 38.4로 크게 증가**하였음. **2015년 농업경영체 D/B 분석 결과(2015년 12월 기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
- 개별경영체 159만 명 중 43.4%가 영농 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임.

경영체 유형		대상 인원(비중)	평균 연령	평균 면적	사육 두수*	평균 조수입
전문	전문농	129,207(8.1)	56	4.1	11,901	19,624
일반	예비 전문농	45,318(2.9)	57	2.2	4,038	3,932
	6차농	98,498(6.2)	54	0.7	1,214	1,966
	일반농	486,285(30.6)	57	0.7	2,579	1,348
고령	고령농***	397,120(25.0)	70	1.0	7,278	2,558
	은퇴농***	293,042(18.4)	79	0.7	467	1,355
창업	창업농	120,938(7.6)	51	0.5	28,601	1,315
기타	취미농	19,388(1.2)	69	0.4	1,935	599

주: ※ 단위가 원자료에 표시되지 않아 해석하기 어려움. / ※※ (고령농)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농업인 / ※※※ (은퇴농)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75세 이상 농업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유형화특별추진단, 2016, "경영체 DB 분석에 기초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기본 구상(안)", 2016.3.

- **[고령농 내 구조 변화]** 고령농과 은퇴농에 속하는 집단을 비교하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음.
- **고령농 집단의 평균 사육 두수는 창업농, 전문농에 이어 세 번째로 큼.**
※ 정확한 추측 확인 후 추가 분석 필요
- **은퇴농 집단의 평균 사육 두수와 평균 조수입은 고령농 집단과 비교하여 각각 93.6%, 47.0% 감소함.**
※ 영농 후계자 유무(특히 축산, 가용 노동력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나) 추가 분석 필요

㉔ 현안분석

- **[고령농 소득 문제] 고령농·은퇴농의 평균 조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소득은 더욱 낮아지므로 저소득 문제에 직면**한 농가가 많을 것임.
 - 김미복 외(2016)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소농’은 은퇴 연령이 지났음에도 소득이 취약해 은퇴하지 못한다고 분석하였음.
 - 유찬희 외(2016)에서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 중 **1.5ha 미만 농가 비중이 61.8%**에 이른다고 분석함. 고령농의 평균 경지면적이 1.0ha 미만임을 고려할 때 **다수 농가가 심각한 소득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함.
 - ※ 해당 집단 농가의 직불금을 포함한 공적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KREI(2016)에서도 제시하였음.
- **[현행 고령농 정책 점검 필요]** 현재 시행 중인 고령농 대상 정책 간 관계, 효과성, 사각지대 유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

영역	정책	소관부처
소득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경제활동참여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복지서비스	노인보건복지사업	보건복지부
	농촌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
	원격의료 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 행복버스	농림축산식품부
	돌봄, 교육, 문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구조	경영이양	농림축산식품부
	후계인력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KREI(2016) 재구성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유형화특별추진단, “경영체 DB 분석에 기초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기본구상(안)”, 농림축산식품부, 2016.3.
- 김미복·오내원·황의식,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32호, 2016.
- 유찬희·박준기·김종인·박지연, 직접지불제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예정.
- 고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9.23.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